

‘종단 아프리카 첫 대학’ 후원 잇따라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봉은사신도회 1억원 기탁 이어

종회의원·서울 소림사도 동참

종단이 세우는 아프리카 학교의 첫 시작을 응원하는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물론이고 사제가 작은 사찰의 주지 스님부터 직영사찰 신도들까지, 후원금을 전달하고 손수 만든 불상을 기증하며 정성이 가득 담긴 마음을 보내오고 있다.

서울 봉은사 신도회는 지난 8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봉은사 신도회가 부처님오신날과 개산대제 등을 맞아 경내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모인 것으로, 오는 5월 개교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들을 위한 농기구 구입에 쓰인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각림·성행·제정·등운·지흥스님 등도 학교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종책모임인 금강회(회장 등운스님) 또한 5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며 정성을 보냈다. 이날 각림스님은 직접 조성한 석조 불상 ‘자들이, 자심이’를 기증하며 “아프리카 학교 아이들이 불상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8월26일 서울 소림사 주지 지범스님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같은 후원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스님과 신도들이 적극 후원에 나서줘 학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됐다”며 “정성을 모아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경민 기자

‘탈종교화 시대, 위기인가?’

69차 포교정책연찬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불광연구원은 3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종교화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제69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탈종교화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의미와 역할,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연찬회는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이 ‘종교 이후의 사회적 영성’을,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이 ‘가톨릭 진짜 잘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이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탈종교시대 새로운 종교성’을,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범스님이 ‘위기의 한국불교, 전통과 근대, 탈근대 가로지르기’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전체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서울 봉은사 신도회는 지난 8월2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오는 5월 개교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불교, 명상으로 현대사회와 소통해야”

불교사회연구소 5주년 맞아 정책 사회 호국불교 3개분야 연구성과 정리 ‘종합보고서’

불교적 시각에서 한국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출범한 불교사회연구소가 출범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연구소가 출범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 사회, 호국불교 3개 분야별 연구 요약, 평가, 과제 등을 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연구소 주요 활동과 언론 보도, 발간자료집 83개 목록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분야’에서는 총무기관의 요구와 조응하는 과제 도출, 새로운 연구 과제의 발굴, 종도와 총무기관으로부터의 신뢰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결과물의 질적 제고, 연구 결과를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포교 활성화 방안, 사찰재정 투명성 연구 가운데서도 특히 불교의 ‘명상’에 주안점을 뒀다. 서구 사례를 보았을 때 불교가 선진화된 현대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은 명상이며, 명상을 매개로 한 정책 개발과 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사회 분야’는 각 이익집단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특성상, 어느 한 집단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종교 교과서 검토, 빈곤, 다문화, 종교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연구 및 인

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1인의 연구원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 가지 연구를 담당하는 것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호국불교 분야’는 개념 정립과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때문에 문제 제기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수록한 자료집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점과 주제의 다양화, 조사 대상과 외연 및 활용 방안 등이 미비한 점은 한계로 꼽았다.

특히 연구소 출범 5주년 종합보고서는 종책 연구는 종단 내부에 국한되고 호국불교 연구는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사회적 영역을 넓히는 데는 무엇보다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 명단

(2016년 8월 11일~8월 23일)

□기금 :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범스님) 5000만원 △공주 감사(주지 화봉스님) 1000만원 △안동 봉정사(주지 자현스님) 600만원 △서울 문수사(주지 태성스님) 450만원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스님) 100만원 △고양 상운사(주지 진만스님) 100만원 △강화 백련사(주지 혜성스님) 100만원 △임동구 50만원 △김봉옥 20만원 △윤순란 10만원 △김종애 5만원 △김현자 3만원 △박선숙 2만원 △김기수 5000원 △사선자 5000원 △김도연건강기원 5000원 △김용휘 5000원 △이순자 5000원. (총 74,425,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문화원수원장에 재안스님

공주 한국문화원수원장에 재안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재안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임자가 맡아왔던 소임을 살아 체계를 갖춰 놓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님의 섬세함을 잘 살려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안스님은 제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 원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미계, 199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및 신도국장,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안양사 주지, 부안 개암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승보공양운동’ <1면에 이어>

정오스님은 “평생 수행자로 올곧은 길을 가다 뜻하지 않은 병고로 힘들어하는 스님들을 돕기 위한 작은 활동”이라며 적극적인 후원을 다짐했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2011년 제도시행 이후 200여명의 스님들에게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2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승려복지제도는 스님들이 자존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단 핵심사업”이라며 “노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승가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재가신행운동 차원에서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본·말사 주지 인사 (8월24일 종무회의)



효명스님
부산 해운정사



가담스님
인천 경림사



본연스님
대구 반야정사



정안스님
당진 보덕사



정문스님
청양 원각사



원종스님
하동 무진암



범우스님
대전 천현사



원혜스님
전주 남고사



범류스님
장수 팔성사



태효스님
고창 문수사



보명스님
파주 검단사



혜원스님
포천 봉운사

불교신문

다나커뮤니케이션

불교신문 부설

좋은사람, 좋은일 자리의 모든것!

템잡 불교취업정보센터
Tem Job

상담문의

☎ 1644-9108

✉ support@danah.co.kr

오픈 기념
무료



www.temjob.com